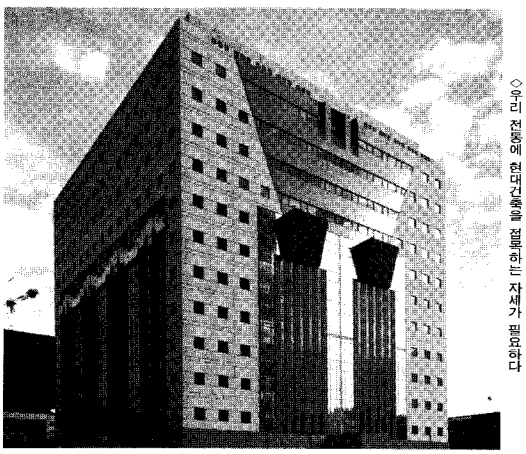
단절된 대중과의 공감대 찾기

요즘 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4) 공간의 미학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교훈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또 서로의 의사를 말로써 뿐만아니라 글이나 도형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순한 사실의 기록에 아름다움을 더하면서 예술이라는 것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일상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을 자극하고자 하는 예술의 행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몇개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서로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듯이, 예술도 어떤 물리적인 매체를 통해서 소수의 제작자와 다수의 대중간에 자연스러운 의사전달이 이루어져야 할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서로의 의사전달은 동일한 문화권과 언어권내에서 잘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의 언어에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눌 때 서로의 의사는 통용될 수 없고, 또 서로의 문화적 배경조차 다르다면 그 이해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전통에 현대건축을 접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한 시대의 문화는 전시대의 유물이나 주변의 다른 문화를 참조하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것으로 전개하였다. 또 이렇게 형성된 하나의 문화권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자주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자신들과 공유하고 있는 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의 테두리내에서 자신들의 것으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과 계몽주의 철학의 대두 그리고 과학기술의 혁혁한 발달로 말미암아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적 상황이 도래하였다. 개인의 이성 존중이라는 인간의식의 변화와 인간시계의 무한한 공간적 확대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의식(zeitgeist)들이 나타나게 된다. 뉴턴의 물리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 하이든의 무수한 반음계의 음악이 쉔베르그의 무조음악으로, 리얼리즈트들의 사실적 회화가 큐비스트들의 추상적 회화로, 조밀한 스케일의 매스적 건축이 순수한 회백색의 볼륨적 건축으로 대체되는 일대의 전환기를 맞게되었다.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이다.

건축에서 모더니즘은 반역사주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어휘의 사용, 그리고 단순 기계미의 추구로 요약될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재료로 이전까지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순수한 건축으로 지역이나 인종에 구별없이 똑같은 세계를 창출하려는 이상의 발로였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집단마다의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듯이 개인이나 인종에 따라 변화무쌍한 심리적, 행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모더니스트들은 이것을 무시하였다. 같은 음식물을 담는 오목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라마다 또 그 문화의 속성에 따라 형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하물며 건축을 똑같은 외형으로 단순히 인간을 담는 기능의 산물로만 취급한 모더니스트들의 이상은 비참한 실패로 끝났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는지도 모른다.

이미 예전된 상황이었지만 수많은 건축적 재앙이 1970년대에 목격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모던의 가장 진보적인 기능주의적 이상에 따라 건설된 야마자끼의 Pruitt-Igoe 집합주거이다. 사용하는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건설되어진 이것은 혹인 거주자들에 의해 파괴되고 기어코는 당국에 의해 철거되고 만다. 이것이 텔레비젼을 통해 전세계로 방영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래서 전통을 거부하며 미학적 개혁 뿐만아니라 사회적 개혁까지 이루려던 모던의 사회적 이상주의는 급속히 사회적 재앙으로 연결되었다. 나아가 그 결과는 모더니즘 이태올리기의 단절현상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어떤 현상을 기술하는데 '이후, 다음, 탈'이라는 뜻을 가진 포스트라는 낱말은 그 시대들 특징지을 뚜렷한 성격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 성격이 너무 다양하여 종잡을 수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를 시대와 시대의 연속으로 파악하여 그 사이를 이전(pre) 혹은 이후(post)로 편성하는 선저인 역사주의에 도대를 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더 이상의 모던이 아닌 단순히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문화현상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건축은 반은 모던하면서도 나머지 반은 전통적 혹은 지역적인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던과 전통 혹은 지역이라는 이중적 형식을 취하면서 소수의 건축가가 다수의 대중과 단절되었던 대화를 재개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연속성위에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여 나라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건축의 특성은 건축의 기능성 대신에 상징성을, 무미건조함 대신에 표현의 풍부함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건축은 중요롭고 다양한 모든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욕구의 표출에 의한 것이고, 또 역사와 기술을 모두 근거자료로 이용하는 실험 정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의 결과가 긍정적이는 부정적이든 서구의 포스트모던 건축가들은 대중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그것의 내용을 나름대로의 논리에 따라 건축에 반영했다. 서구의 문화 또는 서구의 건축역사 발전과정에서 이러한 포스트모던 건축의 전개는 역사의 주기성에 따라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우리 건축의 상황은 어떤가. 80년대 이후 갑자기 나타난 포스트모던의 경향은 서구의 포스트모던의 기법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져서 입면상에 유리로 채워진 박공, 아취형의 입구, 유리로 된 베랑블트, 화강석 아취와 키스톤 그리고 러스티케이션을 구비한 게구부, 나아가 건물의 모서리가 붕괴되거나 융해된 건물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가 없으면서도 포스트모던을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무책임한 저널리즘 미디어가 가세하여 오늘날의 뒤죽박죽된 포스트모더니즘이 나오게 된 것이다.

도대체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그것의 정신이나 태도에 두어야지 양식이나 내용에 두어서는 안된다.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추구한 역사주의나 신토착주의처럼 서구의 형태 모티브를 아무런 의식없이 모자이크식으로 우리 주위에 뜯어 붙여서는 안된다. 우리의 지역여서,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 건축의 전정한 본질을 다시 파악하여 우리의 현대와 접목하는 그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을 가져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만의 언어로 우리 서로의 의사를 올바로 전달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있다. 서구의 포스트모던이 리바이벌리즘, 역사주의, 맥락주의라는 갖가지의 원형을 모두 시대를 달리하는 그들의 과거에 기초를 두고 그들 시대의 새로운 장을 개척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 아무런 비평의식이나 역사의식 없이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수용 혹은 이식이 무의미한 행위인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전통에서 우리만의 자주적인 포스트모던을 추구하자는 각성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빵위에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경향에서 출발한 해체주의의 나무틀 심고 있다.

우리에겐 분명히 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닌 앞으로 내다보기 위한 과거가 존재한다. 이러한 과거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 역사의 연속성위에서 외래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만의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야할 의무가 있다. 웃은 한순간의 유행에 따라 잘아입을 수도 있지만 건축은 그렇지 않다. 후대에까지 그 민족의 문화 가치관을 전해줘야하는 미적인기록이기 때문이다.

이 욱
(본교강사·건축학)

광단시론

서 주 환
(산업대교수·조경)

인간생태계를 위한 환경보호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약300~400만년전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로 네발이 아닌 두발로 서서 걸으며, 불을 이용할 줄 알고, 도구를 사용하며, 언어나 문자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지구상의 여러 생명체 중에서 '문화(文化)와 문명(文明)'을 가진 유일한 동물, 즉 조물주가 빚어낸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찬사를 듣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과거 수백만년간 인류의 역사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는 전적으로 인간의 영특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식량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산업혁명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물질문명을 풍요롭게 하고 인구증가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는 등 실로 인간 스스로가 생각해도 찬탄을 금할 수 없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왔던 것이다. 나아가 인류는 지구라는 한정된 토지공간 속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수 있는 장소, 즉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즉 '도시(都市)'라고 하는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 내어 이속에 인간 고유의 문화와 문명을 쌓았다 허물고 다시 쌓고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사(現代史)라 굳게 믿으며…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점차 인류문명에 대한 회의론 내지는 견제론이 대두되고 있음은 인간이 만들의 영장이라는 자부심에 비추어 볼 때 자못 역설적(逆說的)이라는 느낌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조금만 눈을 돌려 우리가 처해있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앞서 말한 우려의 소리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환경은 얼마나 황폐되어가고 있는지 필설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개발이라고 하는것은 어차피 인류의 삶의 형태가 원시시대의 형태를 벗어난 오늘날 필요하고도 적절한 인간을 위한 행위의 한 종류인 것이다. 흔히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가장 훌륭한 휴식처라고 말들하지만 이미 한계수용의 단계를 넘어선 자연자원대 인구비(自然資源對人口比)를 생각하면 자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당히 통제하고 조절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발행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開發)과 보존(保存)의 상충(相衝)을 어떻게 융화시켜 나가느냐하는 점 또한 자연생태계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적 통념상 '개발=파괴'라고 하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개발행위의 결과를 복잡하고 기계적인 생활양태 속에서 점차 잃어가고 있는 인간의 도덕성 및 가치관의 정립 등 인간 내면세계의 영역을 살찌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의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신의학자들의 말처럼 연속되는 스트레스 속에서 병들어 가고있는 도시민들의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리크리에이션(recreation)자리를 마련하고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주는 것 또한 이 지구를 이끌어 가고 있는 만물의 영장을 생각하는 배려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다시말하면 자연생태계라고 하는 범주속에 인간도 하나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면 인간생태계 또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인간생태계를 무시한 자연보존은 충분한 정신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인간성의 파괴로 말미암아 자연파괴에 의한 지구의 멸망이전에 인간 스스로의 자멸에 의해 그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단순는리해 의한 자연보호나 자연생태계 속의 인간만을 위한 개발의 양극적 개념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수 있는 신창조기능주의(新創造機能主義)에 입각한 적절한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제 환경계획가들은 태초에 조물주가 지구를 만들었듯이 지구의 모든 생물체와 인간이 공존하면서 동시에 인류의 미래를 밝게하고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지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祝 1993년도 한국경영대상 최우수기업상 수상

1993 대학생 하계연수 안내

풍요로운 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꿈입니다.
1924년 창업이래 70여년을 인간존중의 삼양문화를 바탕으로
보다 풍요로운 사회건설에 한 몫을 담당해 온
우리 6천여 삼양가족 모두는
보다 밝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 여러분들과
이 뜨거운 여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마련하게 된 하계연수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구 분	하계연수과정	어학연수과정
①연 수 기 간	1993. 7. 19(월)~7. 24(토) 1주간	1993. 7. 1(목)~7. 31(토) 주 4일(월, 화, 목, 금)강의
②모 집 인 원	40명	30명(15명씩 2class 운영)
③응 모 자 격	4년제 정규대학 재학중인 2, 3, 4학년 대학생	4년제 정규대학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서울지역 거주자
④선 발 방 법	서류심사	어학수준테스트 (테스트 일정 및 장소 : 지원서 접수시 안내)
⑤프 로 그 램 내 용	• 삼양그룹 소개 • 공장견학 • 님밴 사례연구 및 발표 • 교양강좌 • 일체감 조성훈련 • 비지니스 게임 • 명승지 관광 • 단합대회 등	• 외국인 강사 초빙하여 영어회화 중심으로 어학강좌. 어학수준테스트 결과에 따라 반편성(고급반/중급반) AM 09 : 30~10 : 50, 11 : 00~12 : 20 • 공장견학, 명승지관광, 단합대회 등
⑥접 수 기 간	1993. 6. 21(월)~6. 30(수) 토요일은 12 : 00까지	1993. 6. 1(화)~6. 11(금) 토요일은 12 : 00까지
⑦합격자발표	지원서 접수시 안내	지원서 접수시 안내
⑧지원서배부 및 접수처	본사 인사부 인사과(성적증명서 1부 및 반명함판 사진1매 첨부,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	본사 인사부 인사과(학생증 사본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첨부,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
⑨기 타	•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참가 답례금과 고급기념품 지급 • 연수 참가비는 없음	• 출석상 및 우수수료상 시상 • 수료자 전원에게 고급기념품 지급 • 연수 참가비는 없음

※ 이번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중 우수자는 신학 장학생으로 추천 선발할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부 인사과로 문의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63, 우편번호 : 110-725
TEL 740-7155, 715/

삼양

●주식회사 삼양사·化纖, 식품, 사료, 化成, 환경사업 ●삼양종기주식회사 ●선일포도당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삼양화성주식회사 ●신한제분주식회사 ●전북투자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메디케어 ●미원 삼만 파이버 ●삼양그룹중앙연구소 ●삼양그룹의약연구소 ●삼양그룹신일연구소 ●양평회 ●수평장학회